

“주차장 봉쇄·신원 확인…무서워 집 못 가요”

광주 동명동 A오피스텔, 신탁사-시행사 관리권 다툼 심화
 용역업체 직원, 택배수령 시 신분증·퇴거 약속서 등 요구
 입주민 “통행불편에 불안감 호소”…경찰에 고소장 제출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오피스텔을 두고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재산처분 및 관리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입주민들의 거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시행사의 일방적인 임대에 반발한 신탁사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두 달째 오피스텔 입주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인근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A오피스텔 입주자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피스텔(동명로51, 지하 2층~지상 11층, 230세대) 앞에서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이 차량을 동원해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용역업체가 주차장 진입로를 봉쇄하고, 오피스텔 입주자 한 명 한 명의 신원

을 확인하거나 택배 수령 시 개인정보와 계약서, 퇴거 약속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입주자권위위는 지난 8일 동부경찰에 ‘신탁사와 용역사가 입주민의 거주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입주민은 “용역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개인 휴대전화로 택배 송장과 신분증을 촬영해야만 택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거주권과 인권을 위협당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아이들이 등·하교 시 1층에 상주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



지난달 19일부터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현관, 주차장에 신탁사가 위임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불안하고 불편하다”면서 “경찰이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지난 4월 시공업체가 부도나면서, 수탁사인 신탁사와 위탁자인 시행사 간에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 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은 오피스텔 공실과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잔여 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내 놓기로

결정하고 입주민을 받고 있다.

5월 8일 시행사와 수익자인 새마을금고와 시공사, 신탁사가 참여한 현장 회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시공사의 사업 포기 선언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신탁사는 즉각 반발했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권 관리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를 내준 것이 불법 임대차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신탁사는 6월 19일부터 오피스텔 앞에 ‘건물관리 용역 업체를 통해 권한을 위임했다’는 공지사항을 붙이고 입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의 모든 행위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신탁을 위임받은 용역업체가 수익자와 시행사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탁사의 회신이 없다”면서 “신탁사와 법정분쟁을 통해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면 되는데 애먼 입주민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탁사 관계자는 “시행사는 신탁사의 오피스텔 신탁계약에 근거한 소유자 지위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임대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탁사, 시행사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봉산 누출

한빛원전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신규로 교체되는 원자로 헤드 관통관에서 봉산수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광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 5호기 신규로 교체되는 원자로 헤드 제어봉 구동장치 68번 하부 오페가셀의 밀봉 용접부에서 봉산수 누설이 확인됐다.

원자로 상부 헤드에는 두께 177mm의 탄소강 재질인 관통관 84개가 연결돼 있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다. 관통관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새롭게 교체되는 신규 헤드관은 A사의 제작 검사 당시 최대 228kg/cm²의 수압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빛원전 5호기 가동을 위해

25kg/cm²의 수압으로 시험했지만 제어봉 구동장치 68번 하부 용접부에서 분당 2.5ℓ의 봉산수가 누출, 제작 시 발생한 용접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5호기 계획예방정비가 1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원전본부는 “원인분석 및 제어봉 구동장치 69번 교체와 전체 밀봉 용접부 83개에 대한 수압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는 지난 2020년에도 봉산수가 누출됐었다. 조사 결과 무자격자의 용접으로 관련자가 사법당국에 실형을 받았다.

이번 시공사인 A사가 원전 입찰제환을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부실한 시공으로 입살에 오르고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전국연합학력평가 치르는 고3 학생들 2025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0일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광주 증심사 공양간 화재 복원, 내년 상반기 착공

동구, 건립설계비 3억5000만원 반영…총 40억 투입

광주 대표 사찰인 증심사의 공양간 화재 복원 사업에 40억원이 투입된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증심사 공양간(식당) 건립설계비 3억5000만원(국비 2억4500만원·시비 1억500만원)이 국가 유산보존정비사업에 반영된다.

동구는 국가유산청에 증심사 공양간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공양간 착공에 나선다.

이 사업계획서는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시비 12억원)을 투입해 2027

년 공양간 건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자체와 증심사는 사찰 피해 복구를 위한 환경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시와 동구는 이달 중 ‘증심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4000만원(시비 2550만원·구비 1450만원)을 광주 시문화유산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증심사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원(시비 2550만원·구비 450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수목 전정, 소화전 보수 등 주변 정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진단 및 기록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정밀진단·기록화로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보존관리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총사업비 6000만원(국비 4200만원·시비 1800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동구는 자료를 토대로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훼손 여부를 확인한 뒤 보전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초등생, 방학 중 돌봄교실 중식 제공

올 여름방학 기간 중 광주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중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학 중 돌봄교실 무상 중식 제공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올해 2년째를 맞았다.

대상은 광주지역 152개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 오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를 공모·심사, 현장 점검하고 위탁도시락 납품업체를(P.O.O.L)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했다.

각 학교는 납품업체를 활용해 위탁도시락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개별 여건에 따라 납품업체를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안수 기자 joinsu@

“편안한 노후를”…‘살던 집 프로젝트’ 추진

광산구 ‘케어홈센터’ 개소…주거복지 실현
 ICT 기술 접목·고령사회 대응 모델 개발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살던 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광산구는 지난 9일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살던 집 케어홈(돌봄전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광주시, 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 요양시설 등에 가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2025년 보건복지부의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

업에 선정된 광산구는 우산동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도시공사와 협업해 케어홈센터와 중간 집 등 기반 시설을 마련했다.

이날 문을 연 케어홈센터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 3층(102㎡)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돌봄 전담인력 8명이 상주한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방문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을 밀착 지원한다.

광산구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뒤 일상 복귀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 ‘중간집’도 마련했다. 이는 광주도시공사



광산구는 지난 9일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살던 집 케어홈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가 조성한 우산빛어울림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30호를 활용한 것으로, 지자체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돌봄 목적으로 운영 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광산구는 2016년부터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를 ‘중간집 1호 입주자’로 선정,

광산구 의료급여관리사 등을 통한 의료·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살던집”은 단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내 자원과 협업하는 복합적 주거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행 체계를 면밀히 살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실 활용의 우수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 광주의료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복지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 건강, 생활, 의료 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영하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대학 교수와 협력해 ICT 기술을 접목한 고령사회 대응 모델도 개발 중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돌봄 혁신 모델”이라며 “‘살던 집 프로젝트’가 주민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는 광산형 주거복지로 정착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n4415@

SOCIETY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5:26 달출 18:55
 ☁️ 예보 19:50 달진 03:21



광주	☀️	25~36
목포	☀️	25~33
여수	☀️	24~32
순천	☀️	24~32
구례	☀️	23~35
광주	☀️	24~33
임도	☀️	24~32
흑산도	☀️	23~30
고흥	☀️	23~33
진도	☀️	23~32

목포	밀물(고)	01:14 / 12:51
	썰물(저)	06:54 / 18:25
여수	밀물(고)	09:49 / 20:49
	썰물(저)	02:21 / 13:51

빈집률이 60대 절도범 철창행

만년필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철창행.

광주 동부경찰은 10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동명동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A씨는 현관문을 직접 손으로 흔들어보며 인기척이 나지 않는 주택을 병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3일 만인 지난 8일 광주 북구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검거.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송태영 기자